

豐壤趙氏漢山君派世譜跋文

무릇 宗族은 宗親으로서 다른 宗親과 區別되고, 할아버지로서 또 그 祖上이나 타나고, 孫子로서 그 後孫에 傳해진다. 따라서 氏族을 保存하려면 반드시 宗親을 尊敬해야 하며 宗親을 尊敬하려는 자는 반드시 祖上을 崇拜한데서 부터 始作된다. 아! 庚寅年(二〇一〇年)이 된 지금 우리 漢山君派의 世譜(創刊譜)가 完成되었다.

漢山君派는 예로부터 數百年間에 걸쳐 有司體制로 傳하여 오다가 時代의 變遷에 따라 辛丑年(一九六一年)에 宗中으로 結成되어 發足한 지 五十年이 經過하였다. 半世紀를 지나오는 宗中 定款에서 規定하는 世譜의 刊行은 그 必要性을 크게 認識하지 못하여 이 事業計劃案은 定期總會에 案件으로 發議조차 되지 못하였던 次에 丙戌年(二〇〇六年)에 大同譜인 丙戌譜가 刊行 分帙됨을 契機로하여 一家 어른들과 宗中任員님을 筆頭로 하는 熱火와 같은 漢山君派 世譜發刊事業의 必要性을 強力하게 要求함으로 이를 拒否할 수 없는 實情이었음으로 首都圈을 비롯한 主要 世居地가 中心되어 一部 門中元老에게도 諮問을 求하였던 바, 우리 宗中の 世譜刊行事業은 早速히 推進해 줄것을 熱望하는 實情이었다.

따라서 宗中에서는 丁亥年(二〇〇七年) 十二月 十四日(金) 午前十一時 東大門區 新設洞 九十八의 三十二號 「그린캐슬빌라」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宗中 世譜刊行

計劃案을 上程 審議한 結果 絶對多數가 贊同하여 當日 諸規程案을 마련하고 都有 司、副有司、監事 等を 選定하여 宗中 世譜所의 任務을 맡겼으니 選任된 任員들은 節次에 의하여 編輯校正의 有司職을 비롯한 審議委員과 收單有司職을 當該 宗中과 의 協議하에 選定하고 事業計劃案과 歲入歲出 豫算案 等を 通過시키었다。

이어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所在 宗中 事務室에 世譜所를 開設하고 接受되는 譜單을 分類 檢討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不足한 것은 補完하되 疑心되는 것은 審議의 過程을 거쳐 世譜의 印刷原稿를 完成하였으니 總 二二五〇面에 이르렀다。 이를 一帙로 印刷하여 洋裝製本으로 五〇〇帙을 刊行하였다。

나타나고 감추어짐은 世上의 이치이다。 진실로 다 그때가 있는 것인데 이미 나타나고 다시 감춰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또 宗族을 收습하여 그 祖上을 나타내고 祖上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그 세(世)를 延長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마침내 이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相議하여 譜牒(族譜)의 일을 시작하여 끝을 맺으니, 그 뜻을 生覺하건데 어찌 알다고 하랴。

그러나 작은 念慮를 돌아보다가는 일을 그르치는 責任이 없지 않으니 이것이 두려운 바이다。

그동안 世譜所의 實務를 擔當 始終一貫 犧牲精神으로 獻身하고 奉仕하여 주신

많은 關係者 諸位에게 眞心으로 感謝하며 跋文에 代身하고자 한다。

西紀二〇一〇年 庚寅 正月 日

後孫 豐壤趙氏漢山君派世譜所 都有司 誠斗 삼가씀